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강의(15) 초발심(初發心)이 정각(正覺)이다

저번 강의에서 우리의 일상은 '이미 오...

세상이 불타고 있다 어느날, 우루벨라의 해질 무렵, 붓다께서는...

"비구들이여, 사람도 저와 같이 불타고 있다. 사람의 무엇이 불타고 있는가. 1) 눈이 타고 있고, 눈이 보는 물질이 타고 있다..."

어둠과 늪음과 병들과 죽음이 불타고 있고, 또한 근심과 슬픔과 번뇌와 괴로움(悲惱)이 불타고 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우루벨라의 산상수훈입니다. 붓다는 "은 세상이 불길에 싸여 있다!"고 말합니다.

<법화경>에는 삼계화택(三界火宅)의 비

유가 있습니다. 집이 온통 불길 속에 싸여 있는데도, 사랑하는 자식들은 불이 난 줄도 모르고 태연히 소풍장난이고, 가족들은 각자 자기 일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엄청난 혼란에 싸여 있습니다. 이념적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종교간의 골도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 아니라, 미시적 수준에서, 가정 가정에서의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에서, 이웃과 직장 등에서 우리가 겪는 반복과 소모는 거의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외부적 변화를 통해, 가정 전쟁과 정변, 혁명과 개혁들이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면적 변화가 필요하다 역시, 문제의 근본은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탐욕과 공격성, 그리고

무지로 인하여 우리는 내가 사는 이 청정한 법계를 더럽혀 온 것이 아닐까요. 세상 불행의 근본 원인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통과 비참과 직접 '대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외면하거나 도피하지 않고, 변명하거나 정당화하지 않고, 삶의 실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유행들은 불교를 가까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운명과 세상의 무상함에 민감한 사람들이 불교를 찾습니다.

우루벨라의 산상수훈



초발심(初發心)이 곧 정각(正覺)입니다! 바깥을 향해 외쳐다 말고, 내부를 향해서 말을 걸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다." 붓다는, 놀랍게도, 사성제 가운데 처음의 고(苦)의 진리를 깨닫기가 가장 어렵다고 했습니다.

위학일익(爲學日損, 위도일손(爲道日損) 역시 불교는 '이 언덕'을 즐기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즐거움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불교는 나중에 '붓다가 왜 왔는지 모르겠다'거나 '붓다는 40년간 장광설(長廣說)을 늘어놓고서도 아무 것도 말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살펴 보아야 할 것은 우리 내부에 과연 '무엇이 쌓여 있느냐'일 것입니다. 그 정체를 알아야, 치유든지, 태우든지 할 것이 아닐까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주장사파라...

청화 스님의 '집'



조태호



네티즌 교리문답 '무위진인(無位真人)'이란 어떤 사람인가? 한국 조계종의 근원인 중국 임제종의 조사인 임제 선사는 늘 '무위진인(無位真人)'이 되어 살아갈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상식퍼즐 가로 1. 같은 땅에서 1년에 두 번 곡물을 재배하여 수확하는 토지 이용법. 2. 말없이 마음과 마음으로 뜻을 전함, 이심전심 3.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4. 길 잃은 아이 5. 퇴계 이황의 학력을 기리기 위해 안동에 세워진 서원 6. 빛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할 때 쓰는, 빛을 전파하는 가는 유리 섬유.

세로 1. 깨달은 뒤 육도 중생 속에 들어가 제도하는 것 7. 마음을 정함 8. 나(我)라는 상(相) 9. 마음의 상태 10. 잠잠을 써서 딱딱로 친 다음 네모나게 찢어 고물을 문힌 띠 11. 골굴사를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불교계 무술 12. 아내는 공(空)이나 독자적인 본질실체를 갖고 있다(法有)는 주장 13. 아무렇게나 쓰거나 그런 글씨나 그림 14. 알갈리성, 중성, 15. 등걸에 빛나는 빛, 후광.

청화 스님(1923-2003): 전남 무안 생. 1947년 백양사에서 금타 스님을 은사로 득도. 50여년간 전국 선원에서 정진. 곡성 태안사를 중창. 미국 삼보사와 금강선원, 성룡사 등에서 포교.